Digital & IT

악성코드 제거 SW

10개중 7개이상 치료율 '불량'
아무거나 쓰다간 PC 망친다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잘못 구입하면, 큰 코 다친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혼쭐난 PC이용자들 사이에 이번에는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경계령이 떨어졌다.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10개 중 7개 이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늬'에 불과해 이를 믿고 있다가는 PC를 망치거나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단 하나의 악성코드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의 장애를 일으킨 제품이 전체 조사 대상 134종 가운데 74.6%인 100종이나 됐다.

이번 조사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 악성코드 샘플 1천500개에 대해 치료성능 등을

디도스 공격·개인정보 유출 피해
네이버·다음·KT 등 프로그램 우수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1천개 이상의 악성코드를 탐지·치료하고, 이용약관 게시 등을 준수한 우수제품이 15종으로 지난해 하반기(6종)보다 증가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정상파일 등을 악성코드로 잘못 탐지하는 제품은 9종으로 지난해 하반기(32종) 대비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치료율 0%의 프로그램이 82종(61.2%), 다운로드가 중단되거나 설치 및 실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프로그램은 18종(13.4%)에 달했다. 10종의 치료 프로그램 중 7종 이상의 프로그램이 악성코드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PC에 설치한 경우에는 악성코드에 감염되더라도 이를 찾아내 치료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PC가 디도스 공격의 도구로 쓰이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 다음, KT, 안철수연구소 등이 무료로 제공중인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이 유료 치료제 이상으로

악성코드 치료성능 우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서비스업체	유/무료
네이버 PC 그린	(주)NHN	무료
노애드 2+	(주)노애드	유료
다음툴바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무료
바이로봇 Desktop	(주)하우리	유료
안티스탑	(주)아이앤티미디어랩	유료
알약	(주)이스트소프트	무료
피씨닥터플러스	유에스 앤 코리아	유료
nProtect AVS 2007	(주)잉카 인터넷	유료
PC닥터	보안연구소	유료
PC지기	CIS(주) 비전파워	유료
Qook 인터넷 닥터	KT	무료
TC 스파이닥터	(주)프리아이커뮤니케이션	유료
V3 365클리닉	안철수 연구소	유료
V3 IS 2007 Platinum	안철수 연구소	유료
V3 Lite	안철수 연구소	무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중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된 프로그램은 ▲네이버PC그린 ▲다음 툴바 ▲알약 ▲Qook 인터넷 닥터 ▲V3 Lite 등 5종이었다. 유료 프로그램은 ▲노애드2+ ▲바이로봇 Desktop ▲안티스탑 ▲피씨닥터플러스 ▲nProtect AVS 2007 ▲PC닥터 ▲PC지기 CIS ▲TC스파이닥터 ▲V3 365 클리닉 ▲V3 IS 2007 Platinum 등 10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에 대해 유·무선 전화로 자동결제가 이뤄지거나 본인 동의 없이 결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ARS 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민원을 제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대표 광산업체 '글로벌광통신'·'오픈테크놀러지'

자금 조달 우대 받는다

프리보드 예비지정법인 승인

광섬유케이블 전문 제조기업인 글로벌광통신과 LED 경관·보안등 제조업체인 오픈테크놀러지가 프리보드 예비지정법인으로 승인돼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26일 광주 글로벌광통신과 오픈테크놀러지 등 12개 중소·벤처기업을 프리보드 예비지정법인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글로벌광통신(대표이사 박인철)의 경우 광산업공동브랜드(LUXKO) 1호 제품을 개발해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하는 등 광주의 대표적 광산업체다. 지난해 130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해도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 목표액은 20억원이다.

오픈테크놀로지(대표이사 조병수)는 지난 1994년 창업한 뒤 최근 자연광을 그대로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OTN(Opening The Nature) 감성조명을 출시하는 등 LED 분야에서 시장 선점을 노리는 업체다. 오픈테크놀로지는 이를 위해 13억원의 자금 조달을 희망하고 있다.

금투협은 "예비지정 법인의 자금 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최근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조성된 5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통해 예비지정법인 중 유망기업을 선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보드 예비지정제도= 금융투자협회가 테크노파크협의회 등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1일 도입된 제도로, 프리보드 지정 후보로 선정되면 금투협이 벤처캐피털이나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과의 연결을 주선,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된다.

이를 통해 주식 발행에 성공하면 해당 기업은 프리보드에 지정돼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투협은 예비지정법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기업 투자정보시스템(www.techboard.or.kr)'과 '프리보드 기업분석' 책자를 통해 기업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IB) 업무에 관심이 있는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분기마다 투자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자금조달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년 6월부터 인터넷서

자동차 등록 가능

내년 6월부터는 구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관한 자동차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망은 각 지자체로 구분돼 있다. 또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직접 해당 시군구나 구청에 갖고 가야 했다. 그러나 자동차전산망이 하나로 통합되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통합전산망에 접속하고서 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산망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다른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도 자신이 속해 있는 지자체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26일 출시한 2010년형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를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광고모델인 이승기가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김치냉장고 '지펠 아삭'
삼성광주전자 102종 출시

삼성전자는 광주에서 만든 2010년형 김치냉장고 '지펠 아삭' 신제품 102종을 26일 출시했다. 신제품은 칸별 독립냉각, 쿨링커버, 오토클로징 기술과 맛 관리 프로그램으로 김치를 가장 맛있게 보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상·중·하 3개 칸의 냉각기 전원을 따로 켜고 끌 수 있고, 문을 열어도 바깥의 공기가 다른 칸으로 순환되지 않도록 했다.디자인은 빛의 난반사를 이용한 '스칼라 패턴'을 사용해 유럽풍의 느낌을 강조했다.

스탠드형(35종)은 130만~240만원, 뚜껑식(67종)은 70만~140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